

『월남유서』를 통해 본 신광렬 한의사의 독립운동과 생애

이계형, 신민식, 정상규1*

<목차>

I. 머리말 --- 『월남유서』의 배경

II. 본론

1. 『월남유서』의 왕가동 이주와 장백현 대진단 창설.
2. 『월남유서』의 일본 헌병대의 왕가동 마을 습격과 장백현 대진단 무장투쟁
3. 의생제도와 『월남유서』의 요시찰 감시
4. 『월남유서』의 3 차 간도 공산당 사건

주제어: 의생, 대진단, 3 차 간공사건

1 이계형: 국민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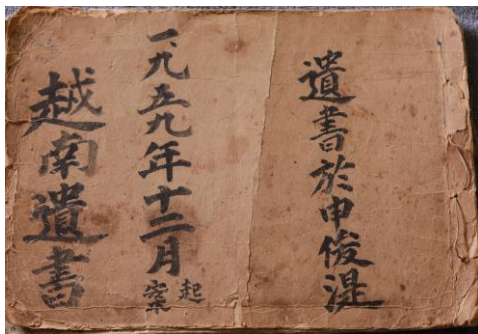
신민식: 한의학 박사, 인하대 융합고고학 박사과정

정상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공공행정 석사과정

I. 서론 --- 『월남유서』의 배경

신광렬은 1903년에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면 동상리 출신으로 신영균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신영균은 5대째 한의업을 대대로 했다. 신광렬은 독립운동 집안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때 탄압을 받으면서 자랐고, 삼촌인 신동균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의해 피살되는 시기를 겪었다. 일제에 의해 요시찰 집안으로 지목이 되어 의사 시험을 볼려고 신청을 해도 수험표도 받지 못하는 탄압의 시절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성 형무소에서 투옥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일제의 암울한 시기를 겪고 해방이 된 후 1946년경 이후부터 신익희씨 밑에서 정치공작대 활동을 하였고, 함경남북도 책임위원으로 북한에서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었다. 발각되면서 북한 보위부의 감시에서 탈출 하였지만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다가 죽게 됐다. 남북한이 단절이 되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다가 가족의 정황을 나중에 전해 들은 신광렬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1959년에 유서를 쓰고 생을 마감하려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월남유서(越南遺書)』이다. 『월남유서(越南遺書)』를 기초자료로 해서 집안 어른인 신희균이 신희申屹, 신킨申訖이라는 이명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2020년 11월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게 되었다. 또한 신광렬 본인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훈처 서훈신청을 하여 올해 8.15 때 서훈을 받게 되었다. 월남유서에 ‘신익희 씨의 지령하에 정치공작대 함남북도의 책임위원으로 월북하여 활동중 신북청 보안대원에게 발각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유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CIA 문서자료가 최근에 발견되었다.

“(전략) 신광렬(신광렬) 동지의 가족은 금번 신 동지의 공작 내용의 일부가 폭로됨을 따라 전부 체포되어 무자비한 고문을 당할 뿐 외라(당할뿐 만 아니고), 신 동지의 영부인은 고문에 못 이겨 드디어 유치장에서 참사의 액을 당하였으니 우리 동지들은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비는 바이오며, (후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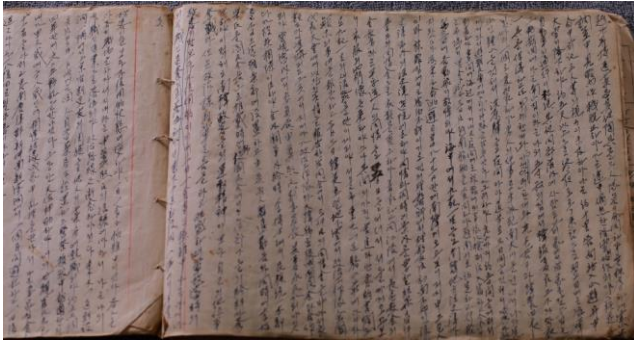


< 『월남유서(越南遺書)』 표지, 1959년 >³

『월남유서(越南遺書)』는 개인 신광렬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근황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는 근현대사의 상황을 좀 더 유출해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기술 되어 있다.

² RG319,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Ik Hi Shin

³ 월남유서는 1959년 초안본과 1969년 재간본이 있다. 1959년 초간본은 장남인 신준식씨가 7세때 쓰여졌다.



<『월남유서越南遺書』 내용, 1959 년>

이러한 월남유서에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광렬의 독립운동 근황과 더불어 일제가 한의사 과거 시험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의생 제도를 만드는 과정, 독립운동 단체인 대진단 창설과정, 제 3 차 간공사건의 정황등을 살펴보겠다.

II. 본론

1. 월남유서의 왕가동 이주와 장백현 대진단 창설.

1) 신광렬의 성장과정

그가 9 살 되던 1911 년 이숙二叔 신흥균申洪均을 비롯한 집안의 가의家議(집안어른들의 의견)에 따라 모든 가족이 북청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봉천성 장백현 17 도구 왕가동王哥洞 삼포리로 이주하였다. 그의 집안은 북청에서 이름난 한의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20 여 두락의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집안 모두가 이를 포기하고 경술국치 이후 망명길에 올랐던 것은 이회영·이상용·김동삼 등 당시 독립운동 집안이 망명한 것과 비견된다. 1910 년 12 월 이회영은 여섯 형제와 가족, 노비 40 여 명을 이끌고 서간도 유하현으로 망명하였고, 경북 안동의 이상용과 김동삼은 50 여 가구를 인솔하고 서간도로 떠나갔다. 밀양 출신의 윤세복은 1911 년 2 월 추운 겨울 날, 일가를 이끌고 망명길을 떠나 서간도 환인현에 도착하여 동창학교를 세웠다. 박은식은 1911 년 가을 서간도 환인현으로 망명하였다. 이들의 망명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버린 한반도를 떠나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의 기회를 엿보고자 한 것이다. 신광렬의 집안이 1911 년에 이주한 것은 1910 년 한일 합방시기 후의 정치적인 망명으로 일가족 전부가 장백현으로 이주했다고 본다. 일본문서 조사에 의하면 장백현에 정치적인 연유로 망명을 한 이주민들이 10%정도 된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신광렬 집안은 북청에 있는 땅 6,000 평을 놔두고 불모지에 해당되는 장백현을 구태여 택한 것은 일제에 의한 탄압을 피하기 위한 망명이라고 본다.⁴ 신광렬은 그 지역의 한문 서당에서 사서 삼경을 14 세(1916)까지 학습하고 조금 늦은 나이인 15 세(1917)에 소학교 4 학년에 편입하여 근대교육을 수학하였다. 그가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김중건이 왕가동에 설립한 昌東학교가 아닌가 한다.⁵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신광렬은 남다른 독립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 년 만에 소학교를 졸업하

4 申光熱. 『越南遺書』 초안. 1959. “中派 장손 申鉉汐에게 위탁하고 장백현 심철도구로 갔다.”

5 강덕상, 『현대사자료』 (27), 「1916 년 12 월 현재 압록 대안지방 한국인 학교 일람표」, 157~165 쪽; 『독립운동사』 제 8 권(문화투쟁사), 366 쪽.

고 18 세에 왕가동을 떠나 북간도 용정시 동흥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동흥 중학교는 1912 년 손병희가 세운 학교로 알려져 있다. 당시 용정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되었는데, 동흥 중학교 재학생 가운데 이를 수용하여 간도 총영사관으로부터 ‘채류금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그는 22 세에 동흥중학교를 졸업 후 1 년간 관립 중국 장백현 녹강가(綠江街)에 세워진 제일 정몽학교(正蒙學校) 훈도로 부임하였다. 정몽학교는 1913 년 11 월 유일우劉一憂가 장백현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바르게 깨우친다’는 뜻을 담아 세운 학교이다. 그는 학생에게 철저한 민족주의 교육하였다. 교사 金冠海를 비롯한 학생들이 1919 년 3.1 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뒤에도 독립운동의 산실로 기능하였다. 신광렬이 재직할 당시 정몽학교는 장백을 무대로 활동하던 匡正團의 간부 출신인 吳周煥이 1925 년에 교장을 맡는 등 독립군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때였다.⁶ 광정단은 1922 년에 대한국민단·대진단·대한독립군비단·홍업단 등의 독립군 단체가 통합 발전한 독립군단으로, 이후 정의부로 통합되었다. 그가 정몽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게 된 것은 삼촌인 신흥군이 김중건과 함께 무장단체인 대진단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라고 본다. 신흥군은 1924~25 년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김중건이 창시한 원종교의 총법회 대정원장(大正院長), 외무사장(外務司長) 등으로 활동하였고, 1933 년 4 월부터 원종교 신도 500 여 명과 함께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으로 편제되어 대전자령 전투 등 북만지역의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였다. 한국독립군이 관내로 이동하였지만, 신흥군은 1930 년대 후반까지 길림성 영안(寧安)·목릉(穆陵)·밀산(密山) 일대에서 최악(崔岳)·최만취(崔晩翠) 등과 함께 지휘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흥군은 정부로부터 2020 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2) 장백현 왕가동 이주와 대진단 창설

신광렬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 봉천성 장백현 17 도구 王哥洞 삼포리로 이주한 17 도구는 장백진에서 303 번 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약 1 시간 30 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 이곳은 조선인들이 이주해 왔을 당시만 해도 ‘왕개골[王家溝]’이라 불렀다. 그곳은 이진호(李晉鎬) 등이 이끄는 대한독립군비단의 근거지였고 압록강을 건너 국내진공작전을 펼치기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1921 년 당시 상황을 적은 일본 문서인 「**警秘 第一六四號**」에 의하면 장백현 지방은 오래 전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무송, 안도 지방은 100 년 전까지 사람이 살지 않다가 40~50 년 전부터 부락을 형성할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다. 겨울에 영하 40~50 도까지 내려가고, 9 월 중순부터 눈이 내려서 다음해 4 월까지 내린다. 일본 경찰대가 조사한 자료에는 영하 38 도였고 눈이 5 척 정도 내린 적도 있다고 한다. 안도현 낭랑고(娘娘庫), 동현 항도자(恒道子), 잉두산(仍頭山) 부근에서는 화전이 약간 개척되어 있어서 귀리, 옥수수, 고량, 조, 감자 등이 산출되었다. 무송, 화전, 안도 각 현계가 되는 송화강 상류의 이도하(二道河) 강가에서는 극히 적은 양의 쌀이 생산되었다.⁷ 임업은 제일 성행하고 있으며 느릅나무, 잣, 낙엽송, 자작나무 등 직경 2~3 척에서 큰 것은 5~6 척에 달하는 큰 나무가 있었다. 수 년 전부터 하천 유역 부근의 벌채를 시작하여 뗏목을 만들어서 송화강의 수류에 의하여 길림(吉林) 방면으로 반출하고 있어서 여름에는 뗏목 운반이 성행했다. 광업은 화전현 가급구를 중심으로 약 10 리 구역에는 20 년 전 경부터 사금(砂金)을 많이 채굴해 왔으나, 생산액은 해마다 줄어서 10 여 년 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목축은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나, 현 내의 수요를 충족할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열악

6 최흥빈, 「장백에서의 민족독립운동과 유일우」,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탐구당, 1992.

7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에게 보고한 기밀문서, 警秘 第一六四號, 大正十一年 三月 二四日, 「支那長白撫松安圖各懸下視察情況」, 朝鮮總督府警務局

한 환경의 장백현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일본 문서에 의하면 몇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⁸ 살기 어렵거나 중국인 지주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장백현에 이주한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인 망명으로 이주한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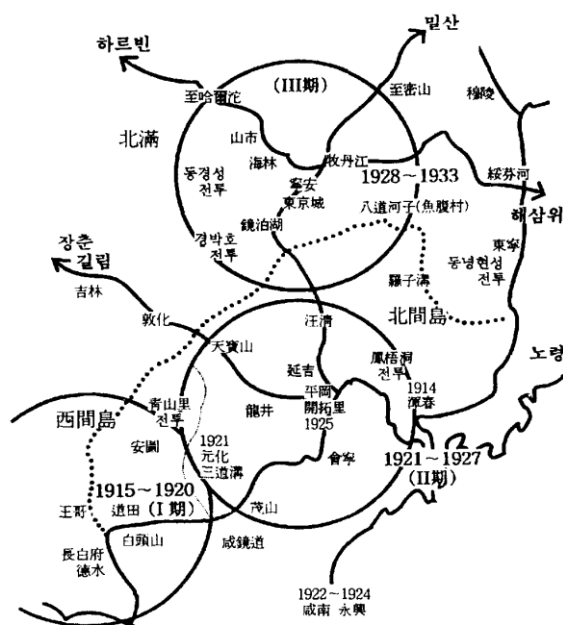
< 장백현 17 도구(왕가동) 답사 사진>⁹

1916년 여름에 원종교를 창시한 金中建이 교도 6, 7 명을 이끌고 왕가동으로 들어왔다. 김중건은 함남 영흥 출신으로 1913년 1월 元徐을 창립하고 1914년 봄 북간도로 망명한 뒤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이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에 전념하던 때였다.¹⁰ 김중건은 원종 포교를 위해 훈춘, 백두산 기슭의 서간도 安圖縣 道田洞, 北溝 등지를 떠돌아 다녔는데, 1915년 중국과 일제가 체결한 ‘만몽조약滿蒙條約’(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 체결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간도 조선인을 둘러싼 중·일의 각축이 다시 표면화되었다. ‘만몽조약’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 지역에서 일본인의 토지상조권土地商租權(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과 영사재판권을 규정한 것인데, 간도 조선인에게 토지상조권과 영사재판권의 적용 여부, 나아가 ‘간도협약’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김중건이 이런 상황으로 경외로 추방되자 찾아 들어간 곳이 신광렬 가족이 머물던 장백현 17 도구 왕가동 이었다. 그러면서 왕가동은 원종교와 대진단이 활동하는 중요한 거점중 하나가 된다. 원종교는 천도교의 친일에 반기를 든 김소래가 창시한 종교이다. 원종은 처음에 동학을 근원으로 해서 나온 천도교에서 다시 나온 종교이다. 동학을 창도한 최수운의 시천주 신앙에서 최시형의 양천주 사상으로 되었다가 천도교의 인내천사상으로 전개해 나갔다. 원종元徐은 동학을 바탕으로 나온 천도교에서 유래했지만 광제창생과 보국안민의 역사의식을 토대로 독립운동의 이론과 사상으로 무장투쟁 운동을 하는 종교이다. 원종은 계급적 차별이 없는 이념 공동체의 이상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반일을 통한 민족 해방을 목표로 한다. 김소래가 처음 원종을 전파하는 안도현 도전동은 깊은 산골이라 사회 결사나 인재 양성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오지였다. 그런 연유로

8 警秘 第一六四號. 「支那長白撫松安圖各懸下視察情況」. 朝鮮總督府警務局. 大正十一年 三月 二四日, 9 필자들이 2018년 봄 장백현 17 도구 답사한 사진.

10 이계형, 「김중건의 원종 창시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39, 2013 참고.

소래는 1916년 왕가동을 거쳐 덕수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¹¹ 김중건은 덕수에서 건원 학교와 원종촌을 건설하였다. 이때 신광렬의 집안 어른인 신흥균은 이름을 신희(申屹)로 개명하고 김중건을 따라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 왕가동은 이진호李晉鎬 등이 이끄는 대한독립군비단의 근거지였고 압록강을 건너 국내진공작전을 펼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 실제 17도구 일대에서 군비단의 이은경(李殷卿)·이태걸(李泰傑)·윤덕보(尹德甫) 등이 1920년을 전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 군비단의 제2지단장 송병걸(宋秉屹)이 17도구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삼포동에 거주하였다. 군비단은 이곳에서 수류탄도 제조하였다고 한다.



<백두산록 안도현, 장백부에서의 활동(1914-1920)>¹²

도표에서 보면 김소래의 활동 1기 지역이 장백부 왕가동과 덕수지역인 점을 비춰볼 때 왕가동으로 이주한 신희(申屹) 집안은 김소래를 비롯한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운동 단체와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를 신희(申屹)의 『월남유서』에서 얘기하고 있다.¹³ 서평일이 「소래 김중건과 항일 민족운동」에서 “1916년 여름 장백산맥의 밀림지대를 맨발로 횡단하여 왕가동을 거쳐 덕수에 도착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 헌병대 문서에 의하면 1914년 8월부터 덕수 서곡에 원종교라는 단체가 생겼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일본문서 내용이 있다.

1921(대정 10)년 1월 17일, 고경(高警) 제 38801호

“안도현(安圖縣) 내에서의 불령(不逞) 조선인 단체에 관한 건

1914(대정 3)년 8월 이래 지나(支那) 장백현(長白縣) 십육도구(十六道溝) 덕수(德水) 서곡(西谷)에 김중건(金中健)을 교주로 하는 원종교(元儆敎)라는 단체가 있는데, 배일(排日) 주의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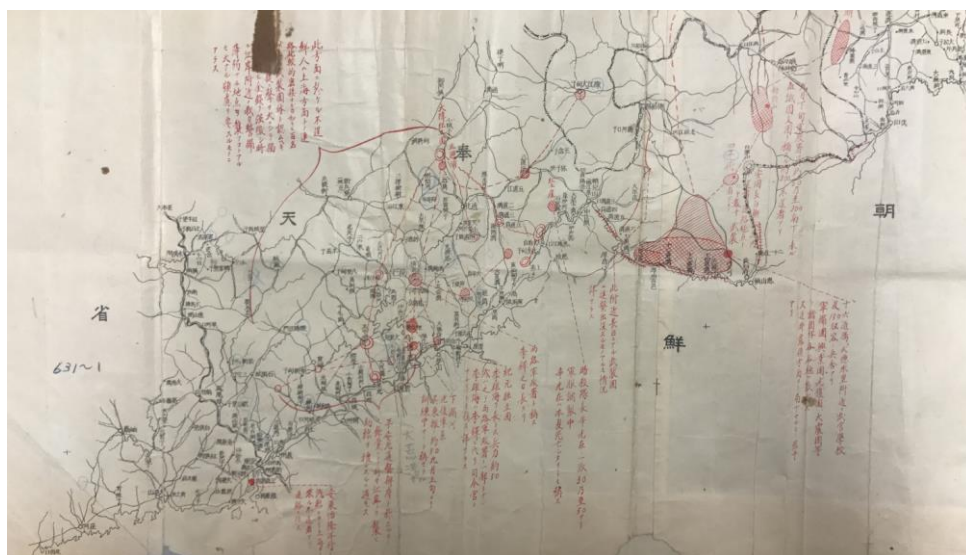
11 서평일, 「소래 김중건과 항일 민족 운동」, 한국 민족 운동사 연구 26, p71

12 서평일, 「소래 김중건과 항일 민족 운동」, 한국 민족 운동사 연구 26, (2000), p 68

13 신희(申屹), 『월남유서』 초안, 1959. “가족이 독립군의 홍왕하는 중국 남만 지방에서 살았고 또 이숙 신희(申屹)씨가 독립군 두목인 대진단 단장으로 맹활약중”

중에서 한때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점차 쇠퇴하였기 때문에, 김중건은 작년 11 월경에 청년 20 여 명을 거느리고 안도현 흥도자(興道子)에 옮겨서 새로 대진단(大震團)이라는 불령 단체를 조직하여 단원 및 군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대진단大震團에서 대진大震이란 발해의 이명異名으로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로 이어지는 민족정신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뜻이다. 발해를 대진국大震國이라 호칭하는데 진震이란 ‘우레, 벼락, 동방’을 뜻한다. 팔괘 가운데 진괘震卦를 의미하기도 한다. 발해는 동방의 국가이면서 사방을 울리는‘우레같은 국가, 동방의 나라’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는 그 당시 발해의 위상과 국력을 과시하는 말이기도 한다. 이는 배달과 단군조선으로부터 대진국인 발해까지 내려오는 국력과 문화의 위상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뜻인 ‘대진단大震團’으로 독립군의 단체이름을 쓴 것이다.



< 중간의 빗금친 대진단 활동 영역 표시— 일본 헌병대 문서>14

대진단은 3.1 운동 이후 군사력을 갖춘 무장 단체로서 활동하다가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군사훈련을 받게 된 것은 1916 년 부터이다. 대진단은 러시아식 총으로 무장력을 강화하였다. 1800 년 대부터 함경도에서 교통적으로 이주하기 쉬운 왕가동과 덕수지역으로 이주한 주민과 1910 년 경술국치이후 1911 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종교리를 전파하면서 급격하게 세력을 불리기 시작했다. 소래 김중건은 원종이 전파된 각 지역을 중심으로 대진단 지단을 설치하였고 무력 군사훈련을 하게 했다.15

2. 『월남유서』의 일본 헌병대 왕가동 마을 습격과 장백현 대진단 무장투쟁

대진단에서 활동한 인재들이 대진단이 무너진 뒤에도 김호의 대한 국민단,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신민부에서 활동하였다. 그 이유는 대진단은 원종의 이념과 사상훈련을 통해서 나온 무력단

14 위 문서 사진은 일본에 4 차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공문서 자료관등을 다니면서 발견한 독립군 단체를 조사한 일본 헌병대 비밀 문서이다. 다른 독립운동 단체보다 더 큰 영역과 인원을 표시한 것을 보면 대진단이 그당시 큰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선행될 필요가 있다.

15 서평일, 「소래 김중건과 항일 민족 운동」, 한국 민족 운동사 연구 26, (2000), p 71

체이기에 민족의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이 투철하였기 때문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상적으로 무장하여, 일제경찰, 마적, 토호세력들을 방어하는 자위대 성격이면서 동시에 독립운동 무력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기에 일제는 항시 주시하고 감시하였다.

“대진단 본부는 향도자에 있다. 향도자는 안도의 북방 2 리, 이도구(二道溝)의 지류인 소사하(少沙河)를 따라 흘러진 몇 부락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대진단(大震團) 본부가 있어서 김중건(金重建)이 단장으로서 부하 70 명을 거느리고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사관을 양성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김중건은 원종교(元宗敎) 교주이자 주민의 8 할이 동교의 신도이므로 상당한 신망을 가지고 있으며, 동 지방의 유력자이다. 5 년 전(1915 년경으로 추정됨)에 이 땅으로 와서 원종교 포교에 종사하였으며, 건원(建元)학교를 설립하여 그 기관으로 삼는 한편 원종 교도로 대진단(大震團)을 조직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¹⁶

원종이 전파된 각 지역을 중심으로 대진단 지단을 설치되어 무력 군사훈련을 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일본 헌병대가 감시하였다. 독립운동 단체의 군자금 마련하는 역할을 원종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진단에서 하였다. 대진단은 원종교의 무력단체로서 표면적으로는 마적과, 토호세력들을 방어하는 자체 방위대 성격을 가졌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자금을 모집하여 여러 독립군 단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대진단의 바탕이 되는 원종교가 일본군 문서상 상당한 세력을 가졌다가 점차 쇠퇴하였다¹⁷고 했다. 쇠퇴하게된 정황을 신광렬의 월남유서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일본 헌병대의 독립군 마을(원종교 마을)의 습격 때문이라고 본다. 월남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숙 신흥균씨가 독립군 두목인 대진단 단장으로 맹활약중 삼숙 신흥균씨는 1919 년인 내가 17 세 되던 가을에 중국지방 압록강 연안인 봉천성 장백현 15 도구 웅구사라는 지방에 이거 생활중 대안인 압록강 건너편 함남 삼수군 강진면 주재리 왜정 주재소 헌병의 암살대가 월강 암살 토벌하야 압록강에 수장시켰으니 품 가족지원환과 분개지심은 창천대얏으며 백발노경에도 나의 심중에 향존 애수로다”

1919 년 3.1 이후로 항일 투쟁 활동이 점점 심해지면서 독립군 활동의 중심지인 장백현 왕가동을 습격하여 독립군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과 그 실행을 한 결과 신광렬 집안의 참변이 1919 년 가을에 발생했다. 장백현에서 압록강 건너 지역인 함경남도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왜정 주재소 헌병 암살대가 압록강을 건너 습격한 사건이다. 습격 당시에 장백현 17 도구(왕가동)의 신광렬 집안 뿐만아니라 그 근처의 독립군 마을이 습격당하면서 원종교 신도들이 많이 죽었다. 그 결과 김중건과 신흥균등의 원종교 간부들이 왕가동의 일본헌병대 습격을 겪고 나서 대진단의 항일 무력 투쟁활동을 더욱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일본군이 이러한 독립군 마을을 습격 하는 것이 1920 년 이후부터 더욱 심해졌다. 1920 년 봉오동 전투후 청산리 전투 직전인 10 월 초부터 3, 4 개월 동안 보복 차원에서 간도 학살이 자행됐다.¹⁸ 일본군 보고서에서 “(일본군은

16 1921(대정 10)년 1 월 17 일, 고경(高警) 제 38801 호

17 1921(대정 10)년 1 월 17 일, 고경(高警) 제 38801 호

18 《獨立新聞》, 1920 년 12 월 18 일, <西北間島同胞의 慘狀血報>에 따르면, 자료상의 한계로 경신참변 당시 간도 한인사회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와 실상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 점을 감안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간도 파견원이 보고한 1920 년 10~11 월 두 달간의 통계만 보더라도, 3,469 명이 희생되고 170 명이 체포되었으며 민가 3,209 개동, 학교 36 개교, 교회당 14 개소,

독립군측에) 섬멸적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독립군의) 중심 인물로 지목된 자의 대부분을 놓쳐 버렸다”라고 한 대목은 완전히 실패로 귀착된 일본군의 ‘초토화 작전’ 결과를 생생히 입증해 주고 있다. 19 조선독립군 초멸(剿滅)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독립군 활동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조선인 사회에 잔혹한 탄압을 가하는 동시에 조선 독립군의 모체인 항일단체·학교·교회 등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감행했다. 일본군들은 서간도, 북간도 전역의 조선인 부락을 구석구석 습격하여 방화할 뿐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지목해 무장하지 않은 조선인조차 참살했다. 1920년 10월부터 시작한 일본군의 경신 만행은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저질러졌고, 그 후에도 잔류 부대가 남아 이듬해 5월 말까지 이어졌다. 일제의 ‘조선군’ 19사단 예하의 주력부대 가운데 하나인 키무라(木村) 支隊는 1920년 10월 20일 온성 부근에서 두만강을 건너 간도 침략을 개시하였다. 이 부대는 북간도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근거지와 마을들을 초토화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10월 22일 대한군정서의 근거지인 왕청현 서대과(西大坡)와 십리평(十里坪) 일대를 휩쓸었던 것도 이 부대였다. 십리평에 있던 대한군정서 병영과 7개 동의 사관연성소 건물이 이때 소각되었다. 이어 이 부대는 백초구(百草溝)와 의난구(依蘭溝), 그리고 이도구(八道溝) 등지에서 150명의 무고한 한인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²⁰

이때 화룡현(和龍縣) 장인강(長仁岡)에 있던 원종 총사 집무실이 불타고²¹ 김중건이 일본군에 체포되어 천보산(天寶山)에 끌려갔다. 다행히 김중건은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그의 제자 김정락(金正洛)은 총살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장인강에서 조직된 대진단은 와해되고 말았다. 이러한 시점에 홍범도와 독립군 부대원들이 청산리전투에 참전한후 도망치는 과정이 일본헌병대 비밀문서에 나온다.

비(秘)

1921(대정 10)년 1월 17일, 고경(高警) 제 38801호

안도현 내는 1920(다이쇼 9)년까지 불령 선인의 소굴지 상태였다. 의용대, 혈성단(血誠團), 대한독립군, 광복단, 의군부(義軍府) 산포대(山砲隊), 대진단(大震團) 등이 활약하고, 조선 내로 무력 침입을 선언하고 있다는 정보가 많아서 국경 위협의 책동지(策動地)였으나...(중략)

1920(다이쇼 9)년 11월경 홍범도(洪範圖)는 약 300명을 거느리고 항도자(恒道子)로 왔으며, 2~3일 묵은 후 하류 방면으로 갔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일본군에 쫓겨서 이 지방으로 패주(敗走)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하략)

홍범도와 그의 독립군 부대원이 봉오동 전투 후 청산리 전투 직전 일본 군인들의 추적을 피해 도망하다가 항도자를 간 것은 그곳에 원종교 신자들과 대진단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투 후 독립군들의 식량 보급과 무기 등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 것이며 홍범도와 원종교인, 대진단원들의 접촉은 자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진단과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 단체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고 본다. 김소래는 대진단을 지청천의 독립군에 참여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우선 신흥군이 지청천 독립군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김

곡물 54,045 섬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만행 실상을 극도로 축소한 일본군측의 자료에서조차도 한인 494명을 살해하고, 민가 531개동, 학교 25개교를 소각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間島出兵史》上, 108쪽)

19 《間島出兵史》上(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2, 韓國史料研究所, 1970), 106쪽.

20 리광인, <‘경신년 대토벌’과 연변 조선족 군중의 반·토벌 투쟁> (《한국학연구》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2), 125쪽.

21 김중건, 『나의 四十年』, 소래의 철학과 사상집 I, 소래선생기념사업회간, 1983. 97쪽.

중건의 명에 의해 신흥군(이명: 신희, 신클)이 대진단 단원 50 명을 이끌고 지청천 장군의 독립군에 참여해서 1933 대전자 전투에서 참여하여 대승을 하게됐다. 그 신흥군이 김중건의 유지를 받들어 지청천 장군과 같이 활동하는 도중에 소래 김중건이 공산주의자 이광에 의해 살해되었다.

4) 장백현 대진단 지단에서 독립군 연합회 결성

장인장의 대진단이 와해되고 나서 대진단 전력을 수습하면서 독립군 대진단 무력단체와 다른 독립군 단체 연합회의를 장백현 대진단 지단에서 다시 하게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는 일본 헌병대의 장백현 왕가동 마을의 습격사건과 같이 연관되어 볼 때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1919 년 왕가동 습격사건이 생긴뒤에 무력단체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하였고, 그러한 의지의 결과 1921 년 1 월 15 일에 장백현 지단 대진단 사무소에서 장백현 독립단체들의 수장과 간부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다. 장백현 지단에서 모임을 갖는 일정이 일본문서에 나타나 있다.

1921(대정 10)년 2 월 5 일, 고경 제 3450 호
비(秘) 국외 정보

●지나(支那) 장백현 내 불령 조선인 집회 건

함경남도의 강 건너편 지나(支那) 장백현 내의 불령 조선인 집회는 지난해 12 월 20 일에 실시하였다고 하되, 금년 1 월 8 일 혹은 15 일이라고도 하고 또한 그 협의 사항 같은 것도 각각 상이하여 일치하는 정보는 없으나, 요컨대 동 현 내의 각 불령 단체가 서로 연락하면서 불령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들이 더 나아가서 각 단체를 통일하여 동일 계통 밑에서 행동하자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이것이 실행될지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지금 그들의 집회에 관하여 믿을 만한 첩보(諜報)에 의하면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집회 월일 및 장소

금년 1 월 15 일 장백현 십륙도구 덕수 서곡리 대진단 사무소 내

2. 참가 단체 및 집합 인원

가. 군비총단(軍備總團) 소재지 십칠도구(十七道溝) 대리치(大利峙)(강변에서 6 리)

나. 대진단 지부同 십륙도구 덕수 서곡리(동 4 리) 본거지는 안도현 홍도자에 있다고 함.

다. 태극단(太極團) 同 팔도구(八道溝) 가재수동(佳財水洞)(동 6 리)

라. 흥업단(興業團) 지단 同 십팔도구(十八道溝) 득영동(得英洞)(동 6 리) 본거지는 무송현(撫松縣) 내에 있다고 함.

마. 광복단(光復團) 제 1 결사대 同 십팔도구서지동(西池洞)(동 6 리) 제 2 결사대 同 십팔도구 이두강(二頭江)(동 5 리)

출석자 총수 58 명

대진단 장백현 지단에서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모여서 단체 연맹활동을 하기로 결의를 하는 회의를 했다. 결의 내용은 연락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매월 15 일에 통상회(通相會)를 개최하여 여연락을 도모하게 했다. 그리고 각 도구마다 1 명의 법단(法團)을 설치하며, 법단은 각 단원중에서 품행이 부정한 자를 처벌하는 권능을 소유하게 했다. 그리고 각 단원중에 신체가 가장 강건한 사람을 암살대로 편성하여 무장투쟁 능력을 향상하게 했다. 군자금을 모집후에 구자부장에게 송부하고 북로(北路) 사령부 군정서(軍政署)에 납부하여 무기를 구입하게 했다. 이때 독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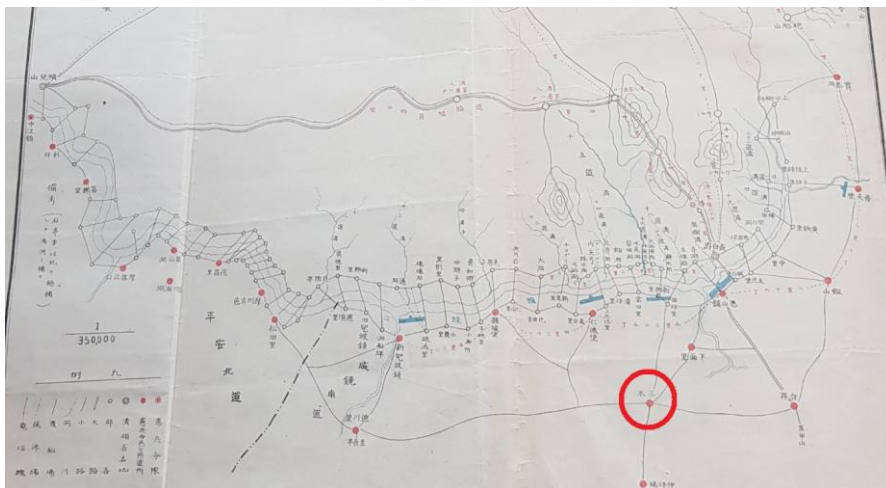
기밀을 누설하는 단원은 처형하기로 서로 결의를 하기로 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 밀정에 의한 피해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무력 투쟁활동을 더욱 하기로 다짐을 30 세 전후의 독립군을 북로 사령부로 보내서 군정서에서 1 개월간 교련을 실시한후 압록강변을 지키도록 했다. 이런 독립단체 연맹결의를 한 다음날 독립군들이 함남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왜정주재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조사한 일본경찰서 비밀문서 내용이 있다.

“1 월 16 일 오후 10 시, 함경남도 신갈파진경찰서 보리주재소(堡里駐在所)

수사반은 삼수군 강진면(江鎭面) 두지리(斗地里)에서 강 건너편에서 침입한 불령 조선인 5 명과 충돌하여 불령자 1 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나 그는 도주하던 중 강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나머지는 지나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리고 1 월 17 일 밤 동 경찰서 수사반은 삼수군 강진면도평리(兎坪里)에 침입한 불령 조선인 5 명을 발견하여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발포하면서 도주하였기 때문에 바로 추적하여 그 2 명을 죽였으나 나머지는 강 건너편으로 도주하였다.”²²

1921 년 1 월 15 일에 대진단사무소에서 무력투쟁 결의 대회를 한뒤 그 다음날 1 월 16 일 습격한 장소가 신광렬의 월남유서에 나온 함경남도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이다. 지도를 살펴보면 압록강을 건너 가까운 헌병 주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함경남도 삼수군 강진면 두지리 왜정주재소를 1 월 16 일, 1 월 17 일 두차례에 걸쳐 습격했다. 이는 1919 년 가을에 왕가동을 비롯한 독립군 마을이 습격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라고 본다.



<독립군이 습격한 함남 삼수군 헌병 주재소>²³

²² 1921(대정 10)년 1 월 28 일, 고경 제 2627 호

²³ 일본 헌병대 지도: 『월남유서』 내용중에 “이숙 신흥균씨가 독립군 두목인 대진단 단장으로 맹활약중 삼숙 신흥균씨는 1919 년인 내가 17 세 되던 가을에 중국지방 압록강 연안인 봉천성 장백현 15 도구 옹구사라는 지방에 이거 생활중 대안인 압록강 건너편 함남 삼수군 강진면 주재리 왜정 주재소 헌병의 암살대가 월강 암살토벌하야 압록강에 수장시켰으니”라고 했던 함남 삼수군 강진면 헌병주재소를 독립군들이 습격했다.

3. 의생제도와 월남유서의 요시찰 감시

신광렬은 소년기, 청년기 시절에 일제로부터 독립운동 가문이라는 ‘요시찰要視察 집안’으로 감시를 받았다. 한의사 격하, 말살 정책속에서 신광렬은 의사 시험을 신청 했지만 집안이 독립운동을 하는 요시찰 집안으로 지목이 되어 수험 번호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 차례 되었다. 그 상황이 『월남유서』에 나온다.

“그 당시 왜정하에 한지의사시험에 고시한바 있으나 요시찰인 가족 계열 인물로 왜정관청에 주목되야 시험번호조차 제외된 것이 수 삼차였었다 그 이유는 가족이 독립군의 홍왕하는 중국 남만 지방에서 살았고 또 이숙 신흥군씨가 독립군 두목인 대진단 단장으로 맹활약중 (중략) 그리고 보니 당시의 왜인들이 우리집에 호감으로 대우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는 나의 의사 희망시험에도 절대적인 방해 뿐이었다.”²⁴

일제가 요시찰 집안으로 지목한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의생시험이나 의사시험을 볼수 없었다. 의생 제도는 일제가 낙후된 전통의학의 일본의 근대의학으로 바꾼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일제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수험표를 주고 시험에 합격시켰다는 것을 『월남유서』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때 의생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의생제도의 선행연구

의생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지현은 ‘식민지기 한의학을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없애려는 일제에 의해 탄압과 말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관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식민지 현실을 지배와 저항으로 이분화 하여 단순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시선으로는 의생 법제를 제국주의에 의한 일방적인 수탈의 도구로 보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선행연구를 거론하면서 “식민지 한의학의 성립과 변화를 역동적으로 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의학이 갖는 폭력성과 차별성, 기만성을 분석함으로써 근대 의료 법제의 식민성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²⁵ 박지현이 선행연구로 인용한 신동원의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한의학 정책을 중심으로」, 「조선 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 두 논문에서 식민지 의학이 갖는 폭력성과 차별성, 기만성을 분석하였다고 했다. 신동원은 「조선 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 논문에서 상기 두 논문에 대한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시작하면서 서양의학을 중심 의학으로 채택했으며 한의학은 열등하고 한시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이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24 申鉉表. 『越南遺書』 초안. 1959

25 박지현, 식민지기 의생제도와 정책의 운영-『醫療關係法制例規綴』중 의생관련 조선 총독부 공문서를 중심으로,

신동원은 일본이 조선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조선 총독부로부터 한의학이 열등하다는 차별을 받았다’²⁶ 고 설명을 하면서 박지현이 인용한 논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서술한다. 류정아는 「한국의학사의 식민지 근대화론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1990년대부터 ‘식민지 근대화론’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동안 한국사 연구자들이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의 수탈과 조선민중의 저항이라는 틀에 얽매어 있다고 판단하는 역사관이 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이 있었다는 관점이다. 류정아는 이러한 주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을 같이 보는 서술방법을 채택하지 않았고, 서술방식이나 통계 인용등이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한다. 박지현의 논문 서술방식도 한의학이 조선 민중에게 폭력성과 차별성과 기만성을 주기에 일본의 근대화된 의료기술로 그 한계를 극복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에서 서술 되었다고 본다.

2) 의생 제도의 본질적 의도

일제는 전통 한의학을 의도적으로 탄압을 했다. 그 이유는 한의학이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1906년 대한제국 광제원에서 진료하던 한의사들을 광제원 축출사건을 위시하여 1913년 11월 조선 총독령 제 102호 ‘의생규칙’을 통해 한의사들의 위상을 격하시켰다. 양방의사들은 의사라 하고 한의사들은 의생²⁷이라는 전문의가 아닌 학생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한방의 수준을 낮추게 하였다. 이는 조선의 의료가 부족해서 일본의 선진화된 의료기술로 조선 민중을 치료하고 고쳐준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발상에서 온 정책이다. 일본은 자체의 전통의학을 존중해서 전통 의학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일본 본토의 의료 정책과 조선의 의료정책에 대한 잣대가 다르게 정책을 시행했다.²⁷ 이런 풍토 속에서 신광렬은 집안이 독립 운동가문인 요시찰要視察 가족으로 등록되어 의사시험을 보지 못했다. 그 당시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지금보다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서, 특히 의사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집안 내력과 성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총독은 한의학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발언과 정책을 시행했다. 1916년 데라우치 총독은 한의학은 단지 과도적인 과정의 의학이라는 인식을 했다. 일본의 의학은 조선의 한의학보다 우월하고 그러한 우월한 의료를 갖고 있는 문명이 우수한 국가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설명했다. 1910년 이후로 한의학은 조선의 후진적인 문명을 알려주는 상징으로 거론하고 선전되었다. 일제가 한의사들을 ‘의생’이라는 격하시킨 것은 이런 조선의 후진성을 알려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²⁸ 통감부 설치를 1906년에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의 식민지화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학 정책을 구상했다. 그것은 1912년 부터 1914년 한의학 관련 여러 법령과 규정을 시행하고 공포하면서 진행이 됐다. 1912년 제령 제 22호 의생규칙은 본문 8조와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다. 의생 규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26 신동원, 「조선 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 의사학 12(2), 2003.12, p 111, 대한 의사학회.

27 신동원, 「조선 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 의사학 12(2), 2003.12, p 112, 대한 의사학회.

28 <일제의 한의학 정책과 조선지배> 저자: 박윤재, 2008. 의사학 17(1), 75-86 대한 의사학회

29 신동원 의사학 12(2), 2003 , 110-128 p 대한 의사학회

제 1 조 의생이라함은 본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 의업을 하는 자를 말함.

제 2 조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의생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력서 및 민적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본령 시행의 날부터 3 월 내에 경무총장에 신청할 것.

1. 조선인으로서 20 년 이상인 자

2. 본령 시행 전 조선에서 2 년 이상 의업을 한 자

전항의 신청자가 의업을 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생면허증을 교부한다.

(중략)

의사규칙 제 11 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또는 시체 혹은 임신 4 월 이상의 사산아를 검안한 경우에 범죄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 시간 내에 경찰서(경찰분서 및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헌병분견소를 포함. 이하 같음) 혹은 경찰 관리 또는 그 직무를 하는 자에 신고할 것.

(하략)

부칙

본령은 1914 년 1 월 1 일부터 이것을 시행함.

본령에 대하여 3 년 이상 의업을 습득한 조선인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당분간 5 년 이내의 기한에 한하여 특히 의생의 면허를 줄 수 있다. 전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민적등본 및 의생의 증명이 있는 수업이력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다만 면허기간이 만료하고 예속신청의 경우에는 면허증만을 신청서에 첨부할 것

위 의생규칙은 다음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제 2 조의 조선인으로 20 년 이상인 자와 본령 시행전 2 년이상 의업을 하는 자者 중에서 의생면허증을 교부하는데 ‘의업을 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문구이다. 이는 의생시험을 보는 객관적인 방법이 아닌 일본 총독부의 주관적인 의도에 의해 의생 면허증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칙에서 면허 인정기간으로 5 년의 시간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5 년뒤에 ‘의업을 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면허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일본 총독부가 한의학을 의생제도의 틀속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신광렬의 월남유서에 나온 요시찰 집안의 사람들은 의생도 될수 없고 의사시험수험표도 받을 수 없는 내용에서 이러한 의생제도의 본질을 인식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생규칙 제 11 조에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또는 시체 혹은 임신 4 월 이상의 사산아를 검안한 경우에 범죄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 시간 내에 경찰서 혹은 경찰 관리 또는 그 직무를 하는 자에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의생이 시체 혹은 임신 4 월 이상의 사산아를 검안한 경우라는 내용은 일반적이지않는 특수한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기에 신고하라는 내용을 기술했는데 이는 타당할 수가 있다. 문제는 그 문장 앞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또는’라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는 모든 의생이 환자를 진찰할 때 범죄의 의심이 들 때는 24 시간 내에 경찰서나 경찰 관리들에게 그 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질병이 있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치료와 처방받으려 내원 했을 때 의생은 그 상태를 진찰하면서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24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시에는 면허취소의 요건이 된다. 즉, 요시찰 집안 사람이나 불령선인인 독립군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와 그런 활동의 정황이 의심이 될때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범죄 의심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사 윤리상의 논란을 일으킨다. 당신 일본 「의사법」의(1906)의 경우 이러한 조항

이 없다. 오히려 의사의 업무상 비밀 누설을 형법에서 금지했다. 일본과는 별도로 조선의 의생 규칙에는 경찰, 헌병에게 의사가“적극적인 신고”를 규정했고 이는 경찰, 헌병을 통한 식민지 지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³⁰

이러한 의생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한다.

첫째, 단계적으로 한의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 배출을 의도적으로 막는 정책이다. 또한 신규 면허자인 경우 5년의 임시 면허를 부여하여 한의사들의 민족 정기에 의한 독립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게했다. 즉 일본이 볼때 불령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게 했다. 일본에 협조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의생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한의학의 위치나 지위를 격하시켜 서양의학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이는 서양의학 기술자는 의사로 명명하면서 스승의 의미를 담게 했다. 이에 반해 한의학을 공부하거나 기술하는 사람들은 의생이라고 하여 학생이라는 차별성을 두었다.

셋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발본 색원하기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조선의 민족 의학이 저열하여 우월한 일본의 의학을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생 규칙이지만 사실 그 내면과 본질은 민족의학, 정통의학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일본의 민족 의학자들에게 서양의학의 장점을 배운 뒤에 의사면허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의사면허를 줄 때 평생 의사면허를 주는데 조선의 한의사들은 의생이라고 격하시키면서 5년마다 갱신하게 했다. 일제는 1920년부터 5년에서 3년으로 갱신 면허 시기를 더 단축을 시켰다.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일제는 조선 지배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한의학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격하시키다가 1930년 전시 체제시에 한의학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인 인적, 물적의 보충으로 표면적으로 한의학을 장려했다. 니시키 조선 총독부 위생과장이 기존 한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유감을 표했고 한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³¹ 그 이유는 전쟁을 위한 의료인의 양성을 위한 목적이었다.

4. 『월남유서』의 3차 간도 공산당 사건

신광렬은 22세에 동흥중학교를 졸업 후 1년간 관립 중국 장백현 녹강가(绿江街)에 세워진 제일 정몽학교(正蒙學校) 훈도로 부임하였다. 정몽학교는 1913년 11월 유일우(劉一憂)가 장백현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바르게 깨우친다’는 뜻을 담아 세운 학교이다. 그는 학생에게 철저한 민족주의 교육을 하였다. 이러한 영향하에 교사 김관해(金冠海)를 비롯한 학생들이 1919년 용정의 3·1 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뒤에도 독립운동의 산실로 기능하였다.

신광렬이 재직할 당시 정몽학교는 장백을 무대로 활동하던 광정단(匡正團)의 간부 출신인 오주환(吳周煥)이 1925년에 교장을 맡는 등 독립군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때였다.³² 광정단은 1922년에 대한국민단대진단·대한독립군비단·흥업단 등의 독립군 단체가 통합 발전한 독립군단으로, 이후 정의부로 통합되었다. 그가 정몽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게 된 것은 당시 신홍균이 김중건과 함께 무장단체인 대진단에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바 컸던 것이 아닌가 한다.

30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31 신동원 의사학 12(2), 2003, 110-128 p, 대한 의사학회

32 최홍빈, 「장백에서의 민족독립운동과 유일우」,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는 총』, 탐구당, 1992.

신광렬이 23 세에 제일 정몽학교에서 교사로 1 년여 동안 근무한 뒤에 혼인을 하게 되면서 국내로 들어와 24 세때인 1927 년에 함남 갑산군 혜산현읍 호적 서기로 재직하였다. 이때 그는 본적을 북청에서 갑산으로 바꿨다. 당시 살던 집 주소는 갑산군 보혜면(옛 혜산진) 혜산리 628 번지였다.

하지만 1 년 후 그는 서기를 그만두고 용정으로 가게되었다. 이는 몇 년전부터 사립의원에 다니면서 한지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시찰 집안이라 수험번호 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면서 마음속에서 반일 감정을 더 품게 되어서 항일운동의 본산지인 용정으로 갔다. 25 세 때인 1928 년부터 용정에 머무르면서 사회주의자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반일사상이 크게 일어나는 시간을 가졌다. 33 이때 신광렬은 삼촌이면서 독립운동가인 신홍(申屹집인 연길현(延吉縣) 수신향(守信鄉) 장경촌(長境村)에 거주하면서 독립운동 활동을 같이 했다고 보여진다³⁴

“18 세에 중국 지방 북간도 용정시 동흥 중학교를 22 세까지 졸업후 1 년간 관립 중국 장백현 제 1 정몽학교 훈도로 재임한바 있고”(중략)

월남유서에 보면 신광렬은 동흥중학교를 졸업하고 정몽학교 훈도로 재직했다는 이력이 나온다. 동흥 중학교는 용정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 같이 제 3 차 간도 공산당 사건의 배경이 되는 학교이다. 그 당시 용정의 학교들은 1920 년대 초반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중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많이 퍼져있었다. 대성중학교와 동흥중학교는 사회주의 활동이 두드러진 학교이다. 학생시위를 3.1 운동 기념시위로 연계하여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 후 대대적인 폭동으로 전환하려 한 것이 이른바 ‘제 3 차 간도공산당 사건’이다.

“내가 25 세 되던 해에 북간도 용정시에 거해야 당시 민족주의자는 정치적으로 방향 전환이라는 사회적 시조에 사상에 합류되어야 한 대(한때) 사회주의자로 전환되어야 반일사상만이 고취중”

1928 년 4 월 하순경 화룡현 평강 개척촌에 거주하는 신태(申澤)의 권유를 받아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 당시 책임자는 신태(申澤)이었고 그는 김중희(金仲熙)·송익현(宋益鉉) 등과 야체이카로 활동하였다. 당시 그는 申林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즈음 그는 小五道溝의 갑(甲) 사무소에서 서기로 활동하였다. 1929 년 3 월경 소오도구에 거주하던 李丙植이 사회운동을 위하여 北滿으로 동반할 것을 권하였으나 고향인 혜산진으로 돌아왔다.

1) 3 차 간도공산당 사건의 원동력이 된 용정의 중학교들.

1929 년 11 월 전남 광주에서 시작된 광주학생운동은 12 월 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대규모 연합시위를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서울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해서 북한 지역의 중등학교들이 가세했고 1930 년 1 월에는 전국적인 시위 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과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식민지 교육 철폐와 더불어 ‘조선 독립만세’의 구호를 외치는 학생운동이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운동은 국내 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학교가 많이 있는 연길현 용정지역이 중심이 되었다. 용정은 1920 년대 이후

33 신광렬, 『월남유서』, 1959.

34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 989 京城地方法院> p516-520

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다. 그래서 6 개의 동흥, 대성, 영신, 은진, 명신, 광명 여학교등 대표적인 중등학교가 있었다.³⁵ 1920년대초에 사회주의 사상이 간도에 퍼지면서 용정의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사회주의 연구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22년 동흥중학교와 대성중학교에서는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강연회와 웅변회가 자주 열렸다. 이런 모임을 주도한 교사는 동흥중학교 교사인 金奉益, 李麟求와 대성중학교 교사 李周和 등이었다.³⁶ 이인구와 이주화는 光明會라는 맑스주의 연구단체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이론과 혁명사상 등을 대성중학교와 동흥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시켰다. 은진중학교의 일부 학생들도 참여하여 회원이 30여 명이 되었다.³⁷ 동흥중학교의 경우 1923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용정에 들어온 朴允瑞, 朱青松 등이 동흥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회, 학생친목회 등을 조직하고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맑스주의 사상을 학습하였다.³⁸ 1925년에는 동흥중학교 교사 金成浩가 독서회를 조직하였다.³⁹

대성중학교는 조선 공산당 東滿區域局 산하 학교연합지부가 1927년 7월에 설치되었다. 교장은 朴載厦이었는데 공산당 책임비서직을 맡을 만큼 학교의 교사를 비롯한 학생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뿌리내렸다.

고려공산청년회 동만도 구역국⁴⁰ 산하의 공산당 조직이 동흥중학교, 대성중학교, 은진중학교에 결성되었다. 1928년 9월 시기에는 대성중학교에는 11개의 하부조직에 44명의 조직원들, 동흥중학교에는 2개의 하부조직에 8명의 조직원이 있었다.⁴¹

고려공산청년회 회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은진중학교에도 許元圭, 李永根 등을 중심으로 세포조직이 결성되어 있었다.

대성중학교 교장 박재하와 교사 임계학, 정일광, 한장순등 4명이 1927년 제 1차 간도 공산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 검거되었다. 이들은 모두 동흥중학교에서 교사 또는 교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다.⁴² 이들의 검거에 항거하여 대성중학교와 동흥중학교 학생 수백명이 일본영사관 앞에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⁴³ 교사들의 검거로 수업결손이 발생하자 동흥중학교의 교사들이 무보수로 대성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1927년 7월 20일부터 2주간 조선공산당원인 張周璉(張時雨)가 대성중학교에서 교육자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연길, 화룡, 왕청현의 사립 소학교 교원 50여명이 강습회에 참여하였다. 이 강습회에서는 맑스주의를 강습했을 뿐 아니라 생도에게 사회주의를 주입하는 방법까지 교육했

35 은진중학교는 1920년 기독교계 학교로 캐나다 선교사 朴傑(Barker)가 설립하였다. 동흥중학교는 1921년 천도교계, 대성중학교는 1921년 孔敎會系, 영신중학교는 1909년 윤상철이 세운 廣成義塾이 1921년 영신학교로 발전한 것이다.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있었다.

36 한생철, 「崢嶸歲月二十六載-恩眞中學」, 『연변문사자료』 6집,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36쪽;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419쪽

37 김성민, 「북간도 龍井의 광주학생운동 동조활동과 제 3차 간도공산당 사건」, 국민대 근현대사 학술회의 자료집, (2020): 한생철, 「革命熱情沸騰의校園-大成中學」 『연변문사자료』 6집, 21~22쪽

38 김동화, 『연변청년운동사』, 연변인민출판사, 1988, 60쪽.

39 박주신, 앞의 책, 426쪽.

40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동만도구역국은 1927년 10월 東滿道로 명칭을 바꾸었다.

41 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권, 청계연구소, 1986, 364, 374~375쪽. 대성중학교 세포조직은 고려공산청년회 동만도구역국 전체 지역, 단체 세포조직 중 가장 많은 수이다. 제 3차 간도공산당사건의 주모자인 장주련(장시우)이 대성중학교의 4 조직원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나(한생철, 「룡정 교육개황(제 1부)」 『연변문사자료』 2집,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편, 연변인민출판사, 1984, 10~11쪽) 세포조직원 명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42 한생철, 「革命熱情沸騰의校園-大成中學」, 『연변문사자료』 6집,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편, 1988, 23~26쪽.

43 한생철, 「룡정교육개황(제 1부)」, 『연변문사자료』 제 2집, 11쪽.

다.44 무엇보다도 사상교육과 반일사상으로 인해 이 지역의 각 학교 학생들은 반일투쟁의 전위대로 활동하였다. 은진중학교 학생들은 매년 10월 1일 단군절에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는데, 태극기를 걸고 애국가를 불렀다. 강연회 연사를 초청하여 항일연설을 듣기도 했다. 학생들은 항일시위도 전개하였다. 동흥중학교 학생들은 1925년 8월 29일 국치일 반일시위투쟁을 계획하고 항일 전단 500여 매를 용정 시내에 살포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등 15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8년 5월 동흥중학교 교사인 朱彩益, 金鳳益 등은 동흥중학교와 대성중학교의 동만청년총동맹 책임자인 朴基柱, 張基永과 협력하여 동흥, 대성, 은진 등 중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상해 5.30 慘案 3주년 기념강연회를 거행하였다. 대회가 끝난 뒤 그들은 각 학교 학생들과 노동자, 농민들이 참가한 성대한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일제를 타도하자”, “일본침략자를 반대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였다.45 1928년 9월 소위 2차 간도공산당 사건 당시 고려공산청년회 회원 뿐아니라 동흥, 대성중학교의 많은 남녀 학생들이 체포되었다.46 이러한 각 학교간 유기적 관계와 상호연계 활동은 1930년 용정지역의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가 학교 연합시위운동으로 전개되는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7

일시	지역	학 교 명	규모	양 상	비 고
1/28	龍井	恩眞중학교 明信여학교 東亞소학교	수백명	3개 학교 학생들이 기를 들고 격문 살포하며 연합 시위운동 전개	67명 피체
1/31	용정	은진중학교	수명	백기 소지 만세고창	
2/5	용정	大成중학교 東興중학교	3백명	양교 3백여 명의 학생이 태극기, 赤旗 들고 ‘한국 독립 만세’고창하며 시위	70명 피체
2/12	용정	동흥중학교 대성중학교 光明여학교	2백명	학생들이 연합하여 ‘조선독립 만세’기제한 赤旗 들고 시위운동	주모자 피체
2/13	용정	永新중학교	60명	격문살포 만세시위운동	주모자 피체
2/17	용정	永新소학교 開成소학교	150명	정오에 삼각기를 들고 만세고창 시위 전개	開成→海星學校說(동아 30.2.22)
2/19	용정	海星소학교 永新소학교 東興소학교	30여명	상급생의 지도로 시위운동	
2/25	용정	대성중학교	수명	적기, 삼각기, 격문을 시내 배포 시도	사전 발각
2/26	용정	公立中央학교	다수	5학년생과 고등과 1년생 등 60명이 기를 들고, 격문 살포하며 시위	총독부 경영 학교, 주모자 퇴학
2월말	용정	동흥중학교 대성중학교 은진중학교	다수	격문 1만매 제작, 각지 살포, 졸업식 당일 대규모 시위운동 계획	사전발각
3/6	용정	光明여학교	30명	대형 백기 들고 격문 살포, 만세고창, 시가행진	
3/6	용정	대성중학교	10여명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고창	

44 「張周璉 신문조서」(1930.11.8, 간도총영사관 百草溝分館 경찰서)

45 리중홍, 「과란곡절을 겪어온 길-동흥중학교」, 『연변문사자료』 1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통정현위원회, 1986, 68쪽.

46 리중홍, 위의 글, 70쪽.

47 김성민, 「북간도 龍井의 광주학생운동 동조활동과 ‘제3차 간도공산당’사건」, 국민대 근현대사 학술회의 자료집, (2020)

2/7	頭道溝	新興학교 藥水洞학교 仲坪村書堂	다수	각 학교생 수십 명이 장날 이용, 격문 배포, 赤旗 소지 '독립만세' 고창 시위운동 전개	
2/22	두도구 부근	각지 학교	다수	두도구 부근 각 지역의 학생들이 4 隊로 나뉘어 시내에서 격문 살포, 만세고창하며 시위	
2/9	老頭溝	中興학교	20 여명	격문 살포, 小旗 소지, '조선독립만세'고창 시위운동 전개	주모자 피체
2/15	依蘭溝	의란구학교	25 명	신문기사에 자극, 시위운동 계획	조선인민회 경영 학교, 사전 발각
2/16	依蘭溝	구룡평학교	200 명	기를 들고 만세고창 시위	
2/16	守信鄉	학산동보통학교	수십명	시위운동 전개	
2/21	二道溝	부근 각 학교	수십명	水城村, 漁郎村, 中南村의 각 학교생이 赤旗를 들고 시위운동	18 명 피체
2/16	尙義鄉	天寶山 보조서당	수십명	서당 학부형이 학생 수십명을 지도, 시위운동 계획	사전 발각, 주모자 피체
2/19	局子街	崇信학교	다수	장터에서 격문 살포, 시위운동 전개	
3/13	局子街	吉林省第 4 師範學校	30 명	학생 30 명이 장날 이용 만세고창	
3/13	局子街	縣立第 1 學校	50 명	韓中 학생이 기를 선두로 격문 살포, 만세고창	
2/27	용지향	平厔里學校	백여명	학생들이 농민과 연합 독립만세 시위	
3/6	和龍縣 明新社	昌東학교	50 명	장터에서 격문 살포, 赤旗 흔들며 만세고창, 친일인 가옥에 투석	중국 군경의 위협 사격
3/12	延吉縣 銅佛寺	인근 학교	2 백명	인근 한인 학교 학생과 청년 단체원, 농민들이 시장에서 태극기 소지, 만세고창	
3/11	三道溝	각 학교	2 백명	기를 들고, 격문 살포, 만세고창	

<연변 지역 학생 활동상황>48

2) 3 차 간도 공산당 사건에 연루된 신광렬.

1929 년 12 월 18 일과 19 일 조선공산당 재건설 만주부위원회와 고려공산청년회 재건설 만주
부위원회는49 격문을 배포하여 “학생 사건을 3·1 운동 이상의 조직적, 대중적, 혁명적 행동으로
서 우리들 피압박 민중은 일제히 쫓기하여 재만 단체는 종래의 파쟁을 청산하고 협동전선을 구
축, 이 운동을 옹호, 원조하라”고 촉구하였다.50 즉 광주학생운동을 3·1 운동에 비견할만한 ‘조
직적, 대중적, 혁명적 운동’으로 간주하며 피압박 민중이 쫓기하여 대중운동을 일으킬 것을 촉
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1930 년 1 월 23 일 용정 시내에 국내의 시위운동과 관련한 격문 수만 매가 살포되
었다. 『연변문사자료』에 따르면,51 1 월 23 일 용정의 동흥중학교를 비롯하여 소학교 학생 수

48 김성민, 「북간도 龍井의 광주학생운동 동조활동과‘제 3 차 간도공산당’사건」, 국민대 근현대사 학술
회의 자료집, (2020): 典據: 강재언 편,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外務省 亞細亞局 第二課, 『昭和五
年三月十四日調 朝鮮學生事件ニ關スル在外朝鮮人ノ行動及支那人ノ言動』, 日本 防衛廳 防衛研究所
소장,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74.

49 서울청년회 구파와 상해그룹이 결합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한 조직이다. 신주백은 이를 “재건
설그룹”으로 호칭했다(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238~239 쪽.)

50 강재언,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1979, 227 쪽.

51 1988 년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가 펴낸 『연변문사자료』 제 6 집에 리종홍, 「파란곡절을 겪어온
길-동흥중학교」(13~14 쪽); 한생철, 「혁명의 열의로 들끓인 배움터-대성중학교」(56~57 쪽); 한

천 명이 동만청년총연맹의 지휘하에 태극기와 손 깃발을 흔들며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에 일본총영사관 기병대 10 여 명이 해산을 명령하였고 학생들과 기병대 사이에 육박전이 벌어졌다.

이때 신광렬은 동만청년총연맹원으로 동흥중학교 선배로서 학생들의 만세시위를 지도하다가 이를 진압하던 일본총영사관 기병대의 경찰에 옆구리에 칼을 맞고 말았다. 신광렬의 아들 신준식(한방자생병원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생존 시 선친이 옆구리에 난 30 cm 정도의 칼자국을 보여주며 제 3 차 간공사건 때 일본 기마병의 칼에 맞아 입은 상처라고 말씀 하셨다고 한다. 1930 년 1 월 23 일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는 여러 학교로 확산하였다. 2 월 5 일, 2 월 12 일에는 학생들의 연합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시위운동이 “광주사건으로 발단되었으나 오랫동안 배양된 민족적 감정이 반일적 행동으로 표면화된 것”⁵²이라고 보았다.

‘3.1 폭동 11 주년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학생들의 시위운동이 확산하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만도위원회는 만주지역의 반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1930 년 1 월 재만조선인반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였다. 당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선전부장에 취임한 장주련(일명 張時雨)이 총국 동만도 책임비서인 윤복송, 선전부장 강석준 등과 밀의하여 1930 년 3.1 절 제 11 주년을 기념하는 거사를 준비하였다. 3.1 운동 11 주년에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만에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화요파) 조직 부장 강계환(姜桂煥)을, 동만에는 선전부장 장주련을 파견하였다.⁵³ 그 결과 1930 년 1 월 말경 길림성 연길현 수신향(守信鄉) 내풍동(來豐洞) 유태순방(兪泰順方)에서 장주련을 비롯하여 책임비서 윤복송, 선전부장 강석준, 조직부장 한성(韓星) 및 당원 이동선(李東鮮) 등이 모여 동만도간부회를 개최하고 각 군중단체대표자들로 ‘3.1 폭동 11 주년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1930 년 2 월 20 일경 이동선의 주도하에 연변학생연맹, 동만조선청년총동맹 등 대표 5 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3 월 1 일 밤까지 수십 종 약 30 만 매를 인쇄하였다.⁵⁴ 이에 따르면, 국내의 학생시위운동에 호응하여 민중적 봉기로 무장 폭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었다. 격문은 동만도 간부 회하의 각지 야채이카를 통해 연길, 화룡, 왕청 등지에 뿌려졌고, 연길현 장인구(長仁溝), 두도구, 이도구, 평강(平崗) 일원과 화룡현 삼도구 등지에 3.1 기념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930 년 2 월 28 일에 소오도구(小五道溝) 내풍동(內豐洞)·수평동(水坪洞) 등지의 농민 3 백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고, 이는 3 월 1, 3 월 2 일에도 이어졌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 타도’, ‘조선독립만세’라는 깃발을 들고 “일제 타도”와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벌였다.⁵⁵

이러한 상황에서 동만도위원회 간부들은 조직을 변경하여 5 월 1 일 메이데이 시위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여 3 월 5 일 ‘3.1 폭동 11 주년기념준비위원회’를 ‘전동만폭동위원회(全東滿暴動委員

생철, 「26 년의 풍운변화-은진중학교」 (53~55 쪽); 리봉구, 「민족교육의 어려운 길에서-영신중학교」 (72~73 쪽) 등에 이와 관련한 증언 자료들이 실려있다.

52 吉林公所長, 「吉公情事第 990 號 間島地方ニ於ケル鮮人學生騷擾事件ノ經過續報(龍井駐在員 報)」, 1930. 2. 22, 中共中央編譯局 소장.

53 경성지방법원검사국, 『사상사건기소장결정판결사철』 (1930 년 豫第 57.58.72.94.102 호), 34 쪽.

54 「간도 3 차공당 예심결정전문(二)」 『조선일보』 1931. 2. 10. 석간; 「제 4 차 간도공산당사건 판결」, 1932. 5. 31. 경성지방법원, 『사상월보』 2 권 4 호,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1932, 76~80 쪽.

55 경성지방법원검사국, 『사상사건기소장결정판결사철』, 36 쪽.

會)’로 개칭하였다. 이들은 ① 폭동에 필요한 자금은 경제위원이 조달할 것, ② 각 위원은 지방 순회를 할 때마다 기회 있는 대로 자금을 모집할 것. ③ 군중을 선동하여 용이하게 폭동을 야기케 할 기회를 놓치지 말 것, ④ 지방폭동위원의 조직을 3.1 폭동위원회가 건설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⁵⁶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3 월 중순 청년, 학생들이 검거되면서 전모가 노출되고 말았다. 이를 주도한 인사들이 4 월 16 일 일제히 피체되고 말았다.

제 3 차 간도공산당 사건에 피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

“북간도의 제 3 차인 간공사건에 연계체포되어 경성 서대문 형무소에 미결수로 10 개월간 복역 중 나의 호명번호는 1679 호였다.”⁵⁷

1930 년 4 월 16 일 이를 준비하였던 인사들이 간도일본영사관 경찰에 의해 일제히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신광렬 또한 1930 년 4 월 21 일 오후 3 시경 해산진에서 해산진경찰서 경찰에 검거되었다.⁵⁸ 간도 연길에서 활동하다가 관련자들이 검거가 시작되자 해산진으로 피신하였지만, 수배 명단에 포함되어 일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그는 사건을 담당하던 간도영사관경찰서로 끌려가 고등계 형사로부터 엄중 취조를 받았다. 이때 제 3 차 간도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피체된 인사는 모두 216 명에 달하였다. 1 개월 동안 취조를 한 뒤 ‘범죄 행위가 유력한 57 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서울로 보내고 나머지는 즉결처분으로 퇴거 혹은 거류 제한 명령을 받았다.’⁵⁹

그 뒤 신광렬 등 57 명은 치안유지법위반으로 1930 년 5 월 하순경부터 3 차에 걸쳐 나남경찰서 경찰의 호송하에 기차를 이용하여 서울로 호송되어 서대문형무소에 미결감에 수용되었다.⁶⁰

5 월 26 일 간도총영사관에서 조선총독에게 사건이 이송되었다. 연행된 명단은 강석준, 이병직, 한명준, 전춘요, 장극준, 배용준, 김광호, 손학무, 최중환(이목), 원용권, 원익상, 김상준, 이순구, 장자권, 조운서, 최태훈, 최현국, 박봉기, 박순기, 신호, 김승기이다.

6 월 21 일 경성복심법원 마쓰히로(末廣) 재판장으로부터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되어 다음 날부터 모리우라 쿠마조우(森浦熊藏) 사상 검사의 취조를 받기 시작하였다. 모리우라는 1908 년 대구지방법원 검사로 한국에 첫발을 디딘 이후 한말 의병, 1919 년 3.1 운동 당시 경성지방법원 검사로서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취조한 공안 담당 검사였다.⁶¹ 당시 신광렬의 수형번호는 ‘1679’였고,⁶² 본적 함남, 주거지 갑산군 보혜면⁶³ 해산리 628 번지였으며 직업은 농업으로 기

56 《조선일보》 1930 년 6 월 23 일자, 「 직접 행동을 결의, 간도 제 4 차 공산당」.

57 申光熱. 『越南遺書』 초안. 1959

58 《중외일보》 1930 년 4 월 26 일자, 「 間島の手配로 惠山鎮署活動」.

59 《조선일보》 1930 년 6 월 23 일자, 「 직접 행동을 결의, 간도 제 4 차 공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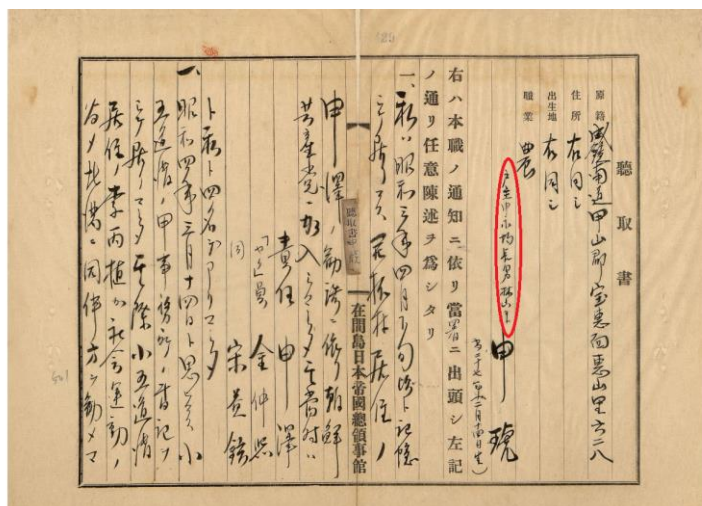
60 《중외일보》 1930 년 6 월 8 일자, 「 간도공산당 餘員 25 명 又復 압송; 《조선신문》 1930 년 6 월 14 일자, 「 간도공산당 引續き押送」; 《중외일보》 1930 년 6 월 14 일자, 「 4 차 간공피의자 16 명 昨夜 着京」

61 《매일신보》 1930 년 6 월 22 일자, 「 이송된 3 차 간공사건 관할법원을 지정」; 《조선일보》 1930 년 6 월 27 일자, 「 간도공산당 기소는 금월 내에 범위 결정」.

62 그런데 당시 신문 자료에는 申鉉表가 아닌 27 세의 ‘申璲’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가 1903 년 생이므로 27 살이 맞고, 호적서기로 근무하였던 ‘갑산’ 출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신광렬이 작성한 『월남유서』 (1959)에 자신의 죄수번호 ‘1679’를 밝힌 것을 봐도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63 해산읍은 갑산군 해산사(社)였다가 보천사와 통합되어 보혜면이 되었다가, 1932 년에 보혜면이 분할하면서 해산면으로 되었다가 1934 년에 읍으로 승격하였다.

록되어 있다.⁶⁴ 그리고 일본 검사의 취조문에서 신호와 신광렬의 호주가 동일한 신영균(申永均)이라는 아래의 취조기록이 나왔다. 동시에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동일한 지문으로 입증이 되었다.



< 신호申號의 호주戶主가 신영균申永均이라는 취조기록 > 65

이런 가운데 이후 간도영사관경찰서에 체포된 12 명이 간도영사관 경찰들의 호송으로 7 월 2 일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면서 66 모두 69 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모리우라 사상 검사 혼자서 구류 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7 월 16 일부터 예심판사의 영장으로 3 개월 동안 유치한 후 심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 수가 많아 일일이 소환 취조할 수 없어 통역 서기를 대동하고 서대문형무소로 출장하여 취조를 진행하였다.⁶⁷

신광렬은 100 일 넘게 옥고를 치른 후 1930 년 8 월 1 일 오후 6 시경에 석방되었다. 이들은 잠시 낙원동의 교통여관에서 유숙하였지만, 집으로 돌아갈 경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 신광렬은 일행을 대신해서 지역유지들에게 경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⁶⁸ 어렵게 예산으로

돌아온 신광렬은 1932 년 7 월 서간도 임강현(臨江縣) 모아산(帽兒山)으로 옮겨가 현립의사강습소에서 6 개월간 공부한 후 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광생의원(廣生醫院)을 열어 8 년 동안 운영하였다.

그 뒤 1942 년 복청으로 귀향하여 1 년간 거주하였다. 1943 년경에는 신흥균이 머물고 있던 목단강 외동구 동승촌에 옮겨가 살면서 1 년 반 동안 의업과 농사를 병행하다가 1945 년 2 월경 미군이 이오(硫黃)섬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교통이 끊길 것을 염려하여 다시 복청으로 귀향하였다.

해방과 월남

64 《매일신보》 1930 년 6 월 22 일자, 「 이승원 3 차 간공사건 관할법원을 지정」 .

65 신광렬의 호주도 신영균申永均으로 신광렬과 신호는 동일인 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자료 :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 989 京城地方法院

66 《중외일보》 1930 년 7 월 4 일자, 「 間共 용의자 12 명 押來」 .

67 《조선일보》 1930 년 7 월 16 일자, 「 간도 4 차 共黨, 검사 취조 개시」 .

68 《중외일보》 1930 년 8 월 3 일자, 「 間共 관계 20 명 昨夕 出監」 ; 《조선일보》 1930 년 8 월 4 일자, 「 팔면봉」 .

북청에서 5 개월 동안 매일 장진항 호수에서 낚시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는 당시 기쁜 마음이 감개무량하였다고 했지만, “사십여년간 왜놈의 압박 속에서 신음하다가 해방이 왔으나 오히려 미래에 잔존한 경구지심(驚懼之心)은 시일을 요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해방 후의 앞날을 걱정하였다.

다음은 신광렬이 『월남유서』에 북한으로 진주한 소련군의 만행을 자세히 기술한 내용이다.

“한참 동안은 해방이니 독립이니 떠들더니 소련군대가 진격하기 시작되자 자유와 인권침해는 불가형언이고 보안대(保安隊)가 당시의 무법천지에서 강권을 발동하고 동시에 소련군은 흥남철소공장, 압록강의 수풍댐과 청진의 일철공장, 성진의 고주파공장 등의 기계뿐만 아니라 만주·몽고 등지로 우마를 반출하고자 조선 웅진항을 통해 소련으로 가져갔다. 또한 소련 장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일본인이 쓰던 가구, 문짝, 다다미 등까지 반출하였다. 만주에서 떠나온 전제민들을 화차에 태우고는 도중에 남자 청장년을 기차 밖으로 떠밀어 죽이는가 하면 그의 가족중 젊은 여자는 차장실이나 정거장 역에서 강간을 자행하였다.”

그는 이러한 소련군의 만행이 더욱 심해지자 반소反蘇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그는 신북청 인민종합병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1945 년 12 월 홀로 월남하였다.

신익희의 정치공작대 활동

신광렬은 월남 후 친구의 장남 안준희安浚熙를 만난 뒤 신익희가 주도하던 정치공작대에 가입하였다. 정치공작대는 1945 년 12 월 임시정부의 국내 기반을 조직할 목적에서 만든 일종의 전위대였는데 신익희가 책임자였다. 당시 정치공작대가 종로 6 가 낙산장에 설치되었는데, 신광렬이 『월남유서』에 “경성부 종로오가 락산장”에 거하였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정치공작대는 철저히 비밀 점조직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미군정도 이를 알지 못했다. 비밀신분증을 소지한 중앙본부 요원을 지방에 파견하여 애국심이 남다른 소수의 사람을 조직원으로 삼았다.⁶⁹ 이렇게 선발된 조직원들은 신익희 인장이 찍힌 비밀신분증을 발급받아 활동하였다. 그 뒤 1946 년 2 월 정치공작대는 먼 단위까지 조직을 완료하였다. 당시 안준희는 정치공작대 중앙본부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신광렬 함경도 책임위원으로 1946 년 1 월 22 일 북한지역 공작 활동을 위해 파견되었다. 그해 1 월 29 일 북청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오전 9 시에 신북청 보안대원 3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구 가택수색을 하는가 하면 신광렬을 강제 연행하고자 하였다. 신광렬은 몸수색을 당하여 지니고 있던 비밀문서가 발각되면 사형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의약품을 만지작거리며 주사용 광고지를 비밀문서처럼 감추는 취하자 보안대원들이 의약품 속에 뭉클 숨겼을 거로 생각하여 이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 틈에 신광렬은 집을 빠져나와 도망칠 수 있었다. 더욱이 그때는 한겨울이라 그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5 리 쯤 도망쳐 산으로 피신하였는데 큰 눈이 내려 5 척 이상 쌓여 다음날에는 기차·자동차 등의 통행이 두절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왕래도 끊겼다. 그는 오촌 당숙의 집을 찾아가 한복과 두루마기를 얻어 입고 머리털 모자, 가위, 토끼털 등을 얻어 낚은 보파리를 들고는 노인 행세를 하여 북청 남대천을 건너 뒤 야간을 이용하여 남으로 내려가 3 일 만에 함경남도 홍원역에 도착하였다. 다시 함흥 내호까지 내려와서는 피난민에 섞여 5 일 동안 걸어 원산에 도착하였다. 낮에는 해변과 시장에서 지내고 형사대의 검문이 뜸한 밤 11 시가 지나서야

69 박진희, 「 논문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 《역사와현실》 21, 1996, 176 쪽.

잠을 청했다. 식사는 시장에서 해결하였고 월남하는 선박을 수소문하여 겨우 승선하였다. 그런데 출발 3 일째 되는 날에 발동선이 고장나 바다 한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강원도 주문진에 겨우 도착하였다. 서울을 떠난 지 13 일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⁷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당시 정치공작대는 북한지역에 요원들을 파견하여 반탁·반공 활동 혹은 주요 요인의 테러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요인 가운데는 1946 년 3.1 절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김일성 암살을 꾀하였고, 다른 요인들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인 최용건과 김책을 암살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외에도 요인들 가운데는 북한의 공장이나 직장에 방화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들의 활동이 탄로 나면서 요인들 가운데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신광렬은 다행히 남한으로 탈출에 성공하였지만, 북청에 남아 있던 부인이 유치장으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죽을 결심을 하고 쓴 것이 월남유서였다.⁷¹



< 작고하기 몇 년전의 신광렬 >

한의업 개업

남한에 돌아온 신광렬은 정치공작대가 해체된 이후에 잠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서 일을 보다가 생활 곤란으로 본직으로 돌아왔다. 먼저 어느 양약방에 취직하여 7 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성동역 부근에 양약방을 차렸다. 하지만 얼마 뒤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피난 길에 떠났고, 당진군 우강면 남원포에서 반신불수였던 남자아이를 침과 약으로 고친 뒤에 그것이 인연이 되어 다시 광생의원을 열었다.

그로부터 4 년 뒤인 1955 년 아산군 선장으로 와서 한의사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에는 아산시 도고역 앞에 청파 한의원을 개원하였다. 그 당시 의료인이 없고 의료시설이 낙후하기에 마을마다 18 번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지역의료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하였다.

서울로 올라와 마포 도화동에 한의원을 열었고 3 년 뒤에는 다시 홍은동에 함남한의원을 개원하고 신광렬(申光烈)이라 개명하였다. 신광렬은 1980 년 작고할 때까지 의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⁷²

70 신광렬, 『월남유서』, 1959.

71 미국 CIA 보고서, 「조직공작상황에 관한 사항」(신익희 파일).

72 신광렬, 『월남유서』, 1959; S 기자, 「저명한 한의사를 찾아서」, 《醫林》 102, 1966.

III. 고찰과 맺음말.

3.1 운동이 일어난지 100 년의 세월이 넘었고 해방이 된지도 76 년이 흘렀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1919 년도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3.1 운동에 참여한 조선인이 약 200 만명이다. 당시 임시정부에 있었던 박은식의 『독립운동지혈사』에 보면 3.1 운동 참여자가 약 200 만명이다.⁷³ 그 가운데 보훈처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16,685 명이다. (2021 년 8 월 8 일 기준)

200 만명이라는 인원은 1919 년도의 독립운동을 한 인원인데 1945 년 해방될 때까지의 독립운동한 인원은 상기 인원보다 더 많다. 그런 독립운동을 한 인구로 볼 때 서훈을 받은 비율은 1%도 안된다. 서훈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자료가 부족해서이다.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이명異名이나 가명으로 활동했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이다. 대부분 붙잡혔을 당시의 신문이나 재판 판결문에 기록 되어있거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회고록을 통해서 입증이 많이 된다. 그런 와중에 개인의 일기장이나 유서도 일차 자료로서 인정을 한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신광렬이 1959 년에 쓴 『월남유서』를 토대로 2020 년 11 월 신광렬의 작은 아버지인 신흥균이 독립군 대진단 단장이며, 대전자령 전투의 군의관으로 활동한 신희(신굴로도 활동)이라는 것을 밝혀지면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았다. 그 과정은 「신흥균 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논문에서 서술했다.⁷⁴ 지금까지 살펴본 『월남유서』에 나와 있는 일본 헌병대의 왕가동 습격사건을 조명하면서 왕가동이 독립운동의 산실역할을 했던 지역중의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왕가동은 원종교를 창시한 김중건이 활동한 주요 거점지역이었다. 김중건의 원종교에서 신흥균은 대정원장을 역임하였고, 신광렬도 원종교 신앙을 한다고 취조기록에 나온다. 1919 년 가을에 일본 헌병대의 왕가동 습격사건이후 대진단 무력투쟁 활동이 더욱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대진단은 장백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독립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논문이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군의 독립군 초토화 작전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본 단체로서 그 명맥이 급격하게 쇠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진단의 단원들은 독립군이면서 동학을 뿌리로 한 천도교 일파인 원종교인元宗敎人들이었다. 그들은 원종교의 사상인 세상이 평등하고 행복한 무극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신념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던 종교인들이었다. 그래서 반목과 갈등없이 타 독립군 단체의 일원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광정단과 통합을 했었고 김중건의 명에 따라 1930 년경 신흥균이 대진단 단원 정예부대 50 명을 이끌고 지청천의 독립군에 합류했다. 그 뒤에 김중건이 공산당원인 이광에게 살해되고 원종교 마을이 해체될 때 노인과 마을 주민들인 원종교인 500 명이 다시 지청천 장군에게 합류하였다. 대진단의 창설과 무력 단체로서의 결사 집회등의 일본문서자료와 『월남유서』의 자료를 토대로 대진단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요시찰집안의 가족인 신광렬을 일제에서 감시하면서 의사시험을 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차단하였던 일제 강점기의 의생제도의 허실을 살펴 보았다. 제 3 차 간공사건의 개요와 간공사건의 모태가 되었던 용정의 중학교들의 독립운동 근황을

73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3.1 운동에 참여한 시위인원은 약 200 여만명이며, 7,509 명이 사망, 15,850 명이 부상, 45,306 명이 체포되었으며,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 호, 교회가 47 개소, 학교가 2 개소였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집계는 이와는 다른데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106 만명이 참가하여 진압 과정에서 553 명이 사망, 12,000 명이 체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야마베 겐타로와 뉴라이트의 신복룡 교수는 각각 46 만명과 50 만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74 정상규, 신민식 「신흥균(申洪均:改名 申屹,申屹)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의사학회, 2021, VOL. 34, No. 1

살펴보았다. 신광렬은 갑산군 해산진에서 호적서기를 하면서 신호라는 이름으로 호적을 읍기고 1년을 다니다가 용정으로 갔다. 1년밖에 호적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요시찰 집안의 일원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동흥중학교 출신이라 자연히 인맥을 통해 용정에서 제 3차 간공사건에 연루가되었다. 그리고 그당시 사회주의자들과 인맥이 있었고 사회주의 이념을 공부했다는 내용이 유서에 나온다. 간도 연길에서 활동하다 해산진으로 피신하던중 체포되었다. 기소된 명단과 불기소 명단의 출신을 살펴보면 연길현 출신인 16명을 비롯하여 체포된 사람들의 고향이 모두 만주의 지명이다. 신호의 출신만 갑산이고 간도에서 수배령으로 갑산 해산진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이는 신호申璈의 이명을 쓴 신광렬申光烈이 갑산군 해산진에서 호적서기를 하면서 호적을 읍기고 생활터전이 해산진이기에 해산진 경찰서에서 취조받은 것이다. 또한 검사의 취조과정에서 나온 서류에서 신호申璈의 호주戶主가 신영균申永均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동시에 지문이 나왔는데 신호와 신광렬의 동일한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그 뒤 신광렬은 69명과 함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4개월 동안 경찰과 검사의 취조를 받았고 1930년 8월 1일 오후 6시경에 석방되었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이 되어 신광렬은 8.15 때 대통령표창장을 서훈받았다.**

본 논문이 『월남유서』라는 개인의 유서를 토대로 서술한 것은 『월남유서』의 내용이 CIA 자료와 일치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월남유서』가 근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자료가 들어있는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개인의 자료나 일기장을 토대로 근 현대사의 사료를 보충해줄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하며 본 논문이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신광렬, 『월남유서』 초안, 1959.

RG319,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Ik Hi Shin

강덕상, 『현대사자료』 (27), 「1916년 12월 현재 압록 대안지방 한국인 학교 일람표」,

최홍빈, 「장백에서의 민족독립운동과 유일우」,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탐구당, 1992.

최홍빈, 「장백에서의 민족독립운동과 유일우」,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논총』, 탐구당, 1992.

警秘 第一六四號, 大正十一年 三月 二四日, 「支那長白撫松安圖各懸下視察情況」, 朝鮮總督府 警務警秘

서평일, 「소래 김중건과 항일 민족 운동」, 한국 민족 운동사 연구 26, (2000)

《獨立新聞》, 1920년 12월 18일, <西北間島同胞의 慘狀血報>

1921(대정 10)년 1월 17일, 고경(高警) 제 38801호

《間島出兵史》上(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2, 韓國史料研究所, 1970)

리광인, <‘경신년 대토벌’과 연변 조선족 군중의 반‘토벌’투쟁>(《한국학연구》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2)

김중건, 『나의 四十年』, 소래의 철학과 사상집 I, 소래선생기념사업회간, 1983

1921(대정 10)년 1월 28일, 고경 제 2627호

박지현, 식민지기 의생제도와 정책의 운영-『醫療關係法制例規綴』

신동원, 「조선 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 의사학 12(2), 2003.12, p 111, 대한의사학회.

<일제의 한의학 정책과 조선지배> 저자: 박윤재, 2008. 의사학 17(1), 75-86 대한 의사회

최홍빈, 「장백에서의 민족독립운동과 유일우」,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 논총』, 탐구당,

한생철, 「崢嶸歲月二十六載-恩眞中學」, 『연변문사자료』 6집,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김성민, 「북간도 龍井의 광주학생운동 동조활동과‘제3차 간도공산당’사건」, 국민대 근현대사 학술회의 자료집, (2020)

한생철, 「革命熱情沸騰の校園-大成中學」 『연변문사자료』 6집

김동화, 『연변청년운동사』, 연변인민출판사, 1988

한생철, 「룡정교육개황(제1부)」, 『연변문사자료』 제2집

리종홍, 「과란곡절을 겪어온 길-동흥중학교」, 『연변문사자료』 1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룡정현위원회, 1986

김성민, 「북간도 龍井의 광주학생운동 동조활동과‘제3차 간도공산당’사건」, 국민대 근현대사 학술회의 자료집, (2020)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강재언,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1979

吉林公所長, 「吉公情事第 990 號 間島地方ニ於ケル鮮人學生騷擾事件ノ經過續報(龍井駐在員報)」, 1930. 2. 22, 中共中央編譯局

경성지방법원검사국, 『사상사건기소장결정판결사철』 (1930년 豫第 57·58·72·94·102 호)

「간도 3차공당 예심결정전문(二)」 『조선일보』 1931. 2. 10. 석간; 「제 4차 간도공산당 사건 판결」, 1932. 5. 31. 경성지방법원, 『사상월보』 2권 4호,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1932,

경성지방법원검사국, 『사상사건기소장결정판결사철』, 36쪽

《조선일보》 1930년 6월 23일자, 「직접 행동을 결의, 간도 제 4차 공산당」

《중외일보》 1930년 4월 26일자, 「間島の手配로 惠山鎮署活動」.

《조선일보》 1930년 6월 23일자, 「직접 행동을 결의, 간도 제 4차 공산당」

《중외일보》 1930년 6월 8일자, 「간도공산당 餘員 25명 又復 압송」

《조선신문》 1930년 6월 14일자, 「간도공산당 引續き押送」; 《중외일보》 1930년 6월 14일자, 「4차 간공피의자 16명 昨夜 着京」

《매일신보》 1930년 6월 22일자, 「이송된 3차 간공사건 관할법원을 지정」

《조선일보》 1930년 6월 27일자, 「간도공산당 기소는 금월 내에 범위 결정」

《중외일보》 1930년 7월 4일자, 「間共 兇의자 12명 押來」.

《조선일보》 1930년 7월 16일자, 「간도 4차 共黨, 검사 취조 개시」.

《중외일보》 1930년 8월 3일자, 「間共 관계 20명 昨夕 出監」

《조선일보》 1930년 8월 4일자, 「팔면봉」.

박진희, 「논문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21, 1996

미국 CIA 보고서, 「조직공작상황에 관한 사항」(신익희 파일)

정상규, 신민식 「신홍균(申洪均:改名 申屹,申屹)한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의사학회,
2021, VOL. 34, No. 1